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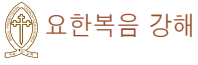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두 번째 기적 I

(요 4:46-54)

이종윤 원로목사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종류의 불행에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욥은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 가는 것 같으니라”(욥 5:6-7) 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고난 속에서 태어나 고난을 헤쳐나가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 고난 까닭에 불꽃이 하늘 위로 올라가 잿더미가 다 흩어지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결국 고난 속에서 태어나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사는 존재들인데, 그 고난을 어떻게 아름답게 극복하고 승리의 개개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가름 하는 것입니다.

1. 슬픔은 누구에게나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요 4:46)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중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에 먼저 도착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인생의 슬픔과 기쁨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러했던 것처럼 가버나움의 이 귀족에게도 불행은 어김없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이 귀족은 체면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소식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찾아 왔고 마침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54절을 보니 이 기적은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다른 기적을 전혀 안 일으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다한 기적을 일으킨 것을 요한복음 2:23이나 4:45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두 번째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강조한 것은 첫 번째 기적과의 유사성이나 대조성 때문입니다.

(1) 두 기적의 유사성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과 이번 기적은 제 삼일의 기적입니다. 요 2:1을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을 떠나 갈릴리로 온 지 삼일 만에 가나에서 물

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 4:43을 보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거쳐 가나에 온 지 이틀이 지난 후 제 삼일이 되는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기적은 모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데 요청을 한 사람들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를 요청하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시며 민망할 정도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귀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며 기쁨으로 말씀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기적은 모두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요 2:5, 4:50). 예수님께서 물에 어떤 물질을 첨가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는 말씀을 믿고 돌아갔더니 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두 기적은 종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요 2:9, 4:51). 또한 두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요 2:11, 4:53).

(2) 두 기적이 서로 다른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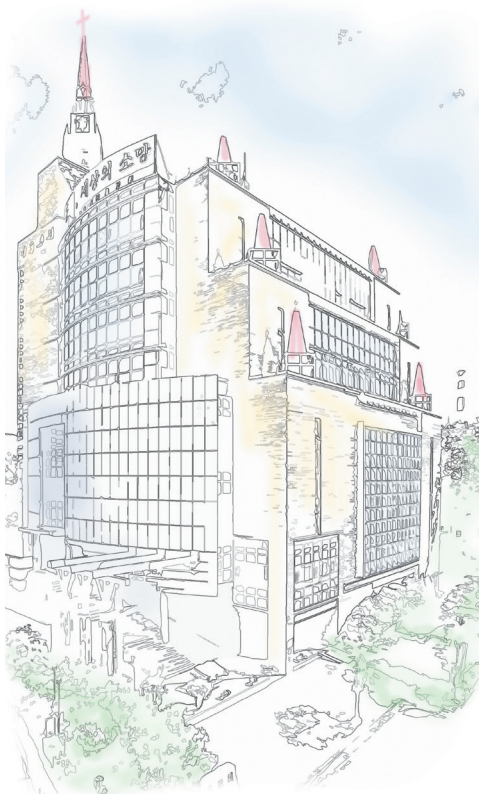
두 기적이 서로 다른 것은 하나는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초상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는 행복과 기쁨과 축제의 기적이라면 또 하나는 질병과 근심과 고민의 상황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근심과 기쁨의 대답이 되십니다. 기쁨 때도 슬픔 때도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귀인은 조건 없이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해답을 얻어 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함으로 그의 모든 염려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병들어 고통하느냐, 경제적으로 무거운 짐이 있느냐, 생업에 문제가 있느냐”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온라인예배의 품질향상

서울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2020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예배를 교회예배와 병행해 왔으며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온라인예배만 진행하고 있다.

매주 1,400여 명이 온라인을 통한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에 주일 아침에 많은 성도들

- 더 나은 온라인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시환 집사 (멀티미디어부 부장)

코로나19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비록 한시적이고 이례적이라고는 하나 우리의 예배도 예외일 수 없는 초유의 거리두기를 고려한 교회 예배와 온라인예배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회는 박노철 목사 측의 교회 접거로 영상 송출을 위한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혼란의 최소화와 영상 예배로의 쉽고 용이한 접근성을 위해 영상 앱을 활용한 유튜브 생중계를 실시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온라인예배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월 23일(주일)부터 8월 30일(주일), 이 기간에 총 118,989명이 온라인예배에 참석하였으며 매주 1,400여 명이 온라인을 통한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서울교회 유튜브 채널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구독자는 554명이며 총 시청 시간은 19,00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순례자 제1490호 참조)

위 기간 동안 한 두 차례 네트워크 불안정에 의한 오류 등이 발생했지만 큰 사고나 혼란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회예배와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는 영상예배를 위한 인프라 부족 속에서도 문제점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 왔으며, 당회와 멀티미디어 팀원들의 헌신적인 준비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교적 무난하게 첫 발을 떼고 예배를 드려온 것으로 평

이 유튜브에 접속함으로 순간 접속이 어려운 경우나 음향의 문제가 몇차례 나타났습니다.

이에 멀티미디어부(부장 : 김시환 집사)는 당회의 지원을 받아 최영철 집사(멀티미디어팀장), 윤요섭 집사(방송실) 등과 함께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 온라인예배의 품질을 향상시켜 성도들의 온라인예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는 애초 우려했던 대로 한 두 차례 발생했던 화면 끊김 현상입니다. 아울러 오디오 음향의 문제입니다. 이들 문제는 사실 현재의 여건에서 고화질 예배영상을 송출하면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던 문제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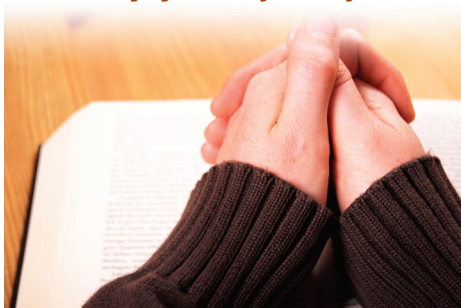
당장 멀티미디어부에서는 위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 인력의 확보 등 안정적인 영상 송출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의 지원을 받아 이번 주 중에 그간의 위 문제점과 부작용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분석해 마련한 보완책인 방송실과의 HDMI케이블 연결을 위한 케이블 공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비 구입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온라인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예배 여건이 얼마나 더 지속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회의 전폭적 지원과 우수한 기술력의 팀원들을 보유하고도 기술적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을 하지 못해 성도님들께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멀티미디어부 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은 사과를 드리오며, 성도님들의 지금과 같은 인내심 있는 협조와 기도로 온라인예배를 통해 갈급한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위기 속에 있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예배를 위해 수고 중인 멀티미디어부

온라인 '학부모기도회'



온라인 학부모기도회가 매일 아침 성경말씀 1절을 묵상하며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 오전 9시에는 "3분의 기적" 말씀묵상, 밤 10시에는 서울교회와 자녀를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각자 처소에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성도들은 중·고등부로 연락 바란다.

- 고등부 부장 : 정완진 집사 010-8889-9133
- 고등부 부감 : 한상욱 집사 010-8007-1506
- 최영경 권사 010-8618-6180
- 기도회 담당 : 박혜정 집사 010-8730-0452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송재현·선순례 안흥희·전화진 김찬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헌금을 온라인계좌로 입금하시는 성도들께

헌금입력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착오가 없도록 입금하실 때 성명과 헌금명목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입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자가 6~7자가 입력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회복기금 계좌와 다름으로 교회에 문의 바랍니다.

예) 홍길동십일조 / 홍길동선교 / 홍길동주일
홍길동비전 / 홍길동지원교회 / 홍길동특별

성경필사 양식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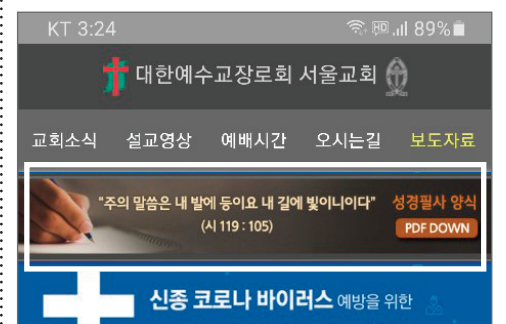
성경필사 양식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모바일버전, PC버전 모두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더욱 많은 성도들이 성경필사에 참여하여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함께 하기 바란다.

서울교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http://iseoulchurch.or.kr/>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모바일에서 다운로드



보고 싶은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어린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상현 장로
(당회 서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선 5년 가까운 결코 짧지 않은 교회분쟁 기간 중에도 지지치 않고 올곧은 믿음의 길을 지켜 오신

여러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초만 해도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 역병의 시대까지 견뎌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고수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이겨 나가고 계실 흠어져 있는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과 진심어린 위로와 존경을 표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교회에서의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예배로만 드리게 되어 그나마 교회에서 잠깐씩 만날 수 있었던 시간까지 빼앗겨 버려 더더욱 아쉬움이 큼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이 개인적으로 더 깊이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이 되고, 일상처럼 참여하였던 교회에서 함께 하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며 무엇보다도 주일에 스쳐 지나치던 믿음의 형제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되돌아 볼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개월여 교회에서의 예배가 제한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다가오는 세대인 교회학교 교육이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어 대단히 아쉽고 죄송하지만, 그 이외 선교와 구제 등 저희 교회

에 맡겨진 여러 사역은 재정적으로 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님들의 생업과 일터가 매우 어려우실 텐데도 여전히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해 드리시는 정성어린 헌금으로 교회재정이 큰 차질 없이 운용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온라인 영상예배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성도님들께 다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박노철 목사의 교회 본당점거로 기존 영상장비사용이 불가능한 열악한 상황에서 멀티미디어부의 헌신적 노력으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영상 앱을 활용한 유튜브 채널을 사용하여 온라인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불안정에 의한 화면 끊김 현상이나 음향의 질적 문제 등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보완 중에 있으므로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진행 중인 법적 송사는 크게 보아 안식년본안 관련 대법원 상고건과 박노철 목사의 총회재판국 출교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및 박노철 목사 측의 불법용역점거에 대한 교회건물 반환과 점거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소송 등입니다. 특히 박노철 목사 측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사건은 수십억이 선고될 수도 있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미 저희와 같은 통합교단의 광성교회 사건에서 동일한 판결이 있었던 사건인데 이에 대하여 박노철 목사 측 모 집사는 광성교회 사건과 서울교회 사건은 내용이 많이 다르다며 애써 흔들리고 있는 지지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어 참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한편 아쉽게도 그동안의 법원이나 총회재판

국의 여러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강남노회는 오직 박노철 목사 비호에만 집착하여 지교회를 도와야 할 상황이 오히려 앞장서서 황폐화 시키며 서울교회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 최고 처리회인 총회의 거듭된 행정지시까지 무력화 하고 있으며, 이에 총회는 마지막으로 오는 가을 정기노회에서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결의하여 파송하겠다는 서울강남노회의 약속을 믿고 한번만 더 기다려 보겠다며 불이행 시 헌법 상의 강력한 조치까지 할 것을 경고하는 3차 행정지시를 하였으므로 이제라도 이 약속을 지켜 바른 노회의 기능과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시므로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조그만 죄까지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가 계속되고 집중되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또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비록 교회에서의 공동체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경건성을 꼭 지켜 주시고 온 종일 주일성수의 거룩성도 훼손되지 않게 하시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예배의 모범을 잘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랜 교회분쟁이 속히 마무리 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도 종식되어 서울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에서의 공동체예배도 재개되어 온 성도들이 본당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는 날을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저의 첫 월급이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예린 학생
(호산나대학)

안녕하세요~
저는 호산나대학 노인케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예린입니다.

저는 지난 8월에 유자원이라는 삼육서울병원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조기 취업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처음 출근하는 날,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 교수님을 비롯하여 부모님께서 '우리 예린이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 저도 제가 결정한 일이니 열심히 해보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출근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유자원에서 영양보호사 선생님들 보

조하는 일, 어르신들 식사보조, 휠체어 정리하기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께 배운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영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월급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참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모범적인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호산나대학에 자랑스러운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좋은 곳에 취업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조기 취업을 도와 주신 부학장님,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첫 월급이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서울교회 에티켓



반드시 체온측정 후 입실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소멸되게 하시어, 경제가 회복되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2.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읽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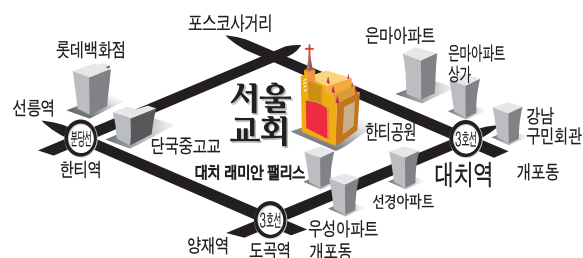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 교구(부서): | | 이름: | | | |
|---------|----|--------------|----|---------|----|
| 일 자 | 요일 | 1년 1독 | 확인 | 1년2독 | 확인 |
| 9월14일 | 월 | 암 1-9 | | 욘 36-42 | |
| 9월15일 | 화 | 욘, 온 1-4 | | 시 1-13 | |
| 9월16일 | 수 | 미 1-7 | | 시 14-22 | |
| 9월17일 | 목 | 나 1-3, 합 1-3 | | 시 23-35 | |
| 9월18일 | 금 | 습 1-3, 학 1-2 | | 시 36-44 | |
| 9월19일 | 토 | 속 1-4 | | 시 45-55 | |
| 9월20일 | 주일 | 속 5-9 | | 시 56-68 | |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
| | II 부 예 배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20분 | 8층(802호) |
| 수 요 예 배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웨스트민스터 홀 |
| 새 벽 기 도 회 | 오전 5시 30분(월-토) | 본당 | |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